

시간만 흐른다(노) vs 그래도 노력 중(사)

6차 집단교섭, 추가 안 없어



6차 집단교섭, 추가 제시안 없다

6.9(목) 14시 우창정기에서 2022년 6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우창정기 사측이 대표로 “코로나로 인한 물가상승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닥쳤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협력해 이겨나가자. 사용자 간 입장 차로 안 제시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뜻을 모으겠다”는 말로 교섭을 시작했다. 1차보다 진전된 안은 내지 않았다.

이규선 지부장은 “금속노조는 6월 말진전이 없으면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알렸다.

사, 제시 자체가 노력 노, 맨몸교섭 말자

사측은 “11개 사업장 의견 수렴 어렵다. 아무 것도 안한 건 아니고, 제시안 낸 것 자체가 큰 노력”이라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도 ‘중앙교섭 합의를 따른다’는 안을 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요구는 중앙교섭 합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중앙교섭 ‘참가’다.

지부는 사측이 잠시 논의해 추가 안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교섭 사전에도 회의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조합은 “사용자 워크숍 진행 등 논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6차 교섭까지 온 상황에서 사측 제시안은 ‘맨몸으로 교섭’하자는 수준”이라며 노력을 촉구했고, 사용자는 “다음 주에는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견차 무엇?

지부는 “사업장 간 의견 차이가 주로 어느 요구 때문인지” 물었다.

사측은 “이미 적용 중인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 간에, 2차, 3차 밴더 등 사업장 상황 간에도 격차가 있어 통합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작업복 세탁 등은 노사가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를 움직이자는 것으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문제이지만, 사용자는 사업장들이 속한 관할 지자체가 다 달라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지부는 “중앙교섭은 지부보다 참가 사업장이 더 많고 다양한데도 안이 나오는데 11개 사업장이 안을 못 낸다는 것 납득 어렵다. 지금은 신규 사업장들만 논의만 좀 더 필요한 수준으로 전체는 진전됐어야 할 타이밍”이라며 교섭의 진전을 촉구했다.

차기에 진전된 안 내라

사용자는 “머리를 맞대는 중. 수위와 시기 등에 입장 차 있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안을 내겠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부는 “집단교섭 진전 있어야 사업장 교섭도 원만하게 진전 가능, 각 사업장에서 안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차기 교섭에서는 임금과 공동요구 모두에서 진전된 안을 낼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6차 교섭을 마쳤다.



교섭위원들은 우창정기 현장순회를 하며 조합원들을 만났다. 다음 교섭은 **6월 16일(목) 14시 동양피스톤**에서 열린다.